(오른쪽부터) 박상원 삼정KPMG 컨설팅부문 대표와 신은영 SAP 코리아 대표가 17일 협력 체결식을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삼정KPMG삼정KPMG가 SAP 코리아와 공공·금융 부문의 SAP S/4HANA 클라우드 전환 및 신규 구축 사업을 위해 협력한다고 17일 밝혔다.이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된 협력 체결식에는 삼정KPMG 컨설팅부문 박상원 대표와 SAP 코리아 신은영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력 체결을 통해 삼정KPMG는 공공·금융 부문의 SAP S/4HANA 클라우드 구축 사업에 나설 예정이며, SAP는 이에 대한 기술 및 영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내 인증 획득 및 유지를 위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는 한편, 공공·금융 부문 외의 사업 기회 역시 상호 협력한다는 방침이다.국내 공공·금융 부문은 정부의 클라우드 관련 보안 인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해 클라우드 ERP 도입이 활발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같은 민간 부문 대비 도입이 더딘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삼정KPMG는 이번 협력 체결을 통해 양사가 보유한 다년간의 정부 정책 검토에 기반한 규제 준수 및 구축 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박상원 삼정KPMG 컨설팅부문 대표는 "이번 협력 체결은 클라우드 ERP 도입을 희망하는 국내 공공 및 금융 부문 고객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기술 및 영업 지원을 포함해, 국내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SAP의 지원은 삼정KPMG 뿐 아니라 고객에게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신은영 SAP 코리아 대표는 "이번 협력을 통해 공공과 금융 산업의 클라우드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삼정KPMG와의 협력은 큰 의의를 가진다"며 "특히 공공과 금융을 위하여 두 가지 모델로 제공되는 SAP S/4HANA 클라우드는 국내 공공 및 금융 부문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보다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양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공공 및 금융 부문뿐 아니라 다양한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